

36.5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움



일상에 기쁨을 더하는, 오티스타

같은 듯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시선과 독특한 상상.
오티스타와 함께하는
하루는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한다.



“Joy”

양 손 주먹을 살짝 쥐어봅니다. 누군가를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꼭죽이 '팡' 터지듯 손가락을 활짝 펴보세요.

올 한 해, 모두들에게 축하할 일이 가득했던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 사회적기업 <열린책장>과 함께 배우는 수어교실은 p4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ways with you 오티스타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움

Issue in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시도들

- 18 ◦ **Column** 환경문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과제 .경향신문 기자 김기범
- 20 ◦ **人Taboo**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서 재활용을 외치다 .사회적기업 컴윈
- 24 ◦ **Zoom in** '도시의 에너지 전환'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 .성대골 김소영 대표이사
- 28 ◦ **Global report**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다!

Vision up 사회적기업의 좋은 친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2 ◦ **Cheer up** 몸과 마음에 건강한 희망을 심다 .(주)희망드림
- 36 ◦ **K씨의 하루** 이 남자가 도시에서 사는 법
- 40 ◦ **Great choice**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한 해의 마무리
- 44 ◦ **News**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외
- 46 ◦ **36.5 Hot lin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 48 ◦ **배워봅시다** 조용한 손짓, 진실한 언어
- 50 ◦ **독자 Box**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기획·취재·디자인 ㈜워크디자인 T. 02-332-7961~2 인쇄 ㈜연각P&D T. 02-2285-3388

본지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특별한 눈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움

오티스타

반짝이는 눈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이상을 담아내고, 대상을 향한 몰입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펼쳐낸다. 자폐인의 특별한 눈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기분 좋은 여유를, 색다른 영감을 선사하고 있다. 글 | 기사윤, 사진 | 박성희



이화 52번가 상점가



이화여대 인근 골목, 이화 52번가 상점가는 청년들이 기업이 정신을 학습하며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과 문화·기술이 결합된 청년창업 문화거리이다. 개성 강한 상점들 사이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오티스타'다.

다채로운 색깔을 입은 제품



'오티스타' 매장 안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다. 노트·필기구부터 다이어리, 에코백, 텀블러, 머그컵, 우산, 골프공까지. 제품들을 빛내는 것은 다채로운 색깔, 빛깔과 무늬를 입은 일러스트다.

오티스타의 디자이너



오티스타에는 총 10명의 디자이너가 근무하고 있는데, 강렬한 색감,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재해석 등 디자이너 각각의 스타일과 특징은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개성이 넘친다.

자폐인의 잠재력



사람의 걸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폐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동일한 단어의 반복,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 등의 특성은 자폐인 개인의 개성을 가리고 자폐인을 장애인으로만 규정짓는다.

그림으로 소통



오티스타는 디자이너 중 10명이 자폐인이 다. 사람들과 일상적 소통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들은 그림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오티스타 제품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한 그림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

우리는 프로 디자이너



자폐인 디자이너가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들이 제품 디자인으로 활용된다. 고객사의 주문·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이너들은 고객사 요구를 무리 없이 수용하고 고객사가 원하는 콘셉트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일상에 스며든 오티스타



오티스타의 제품들은 일상을 기분 좋게 만든다. 노란 하늘 아래 파란 초원, 흰머리 독수리와 치타와의 나들이. 상상 속 세상은 버겁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 잠시나마 동심에 젖어들게 한다.

자폐 디자이너의 튼튼한 버팀목



오티스타는 자폐인의 재능재활을 돕는 곳이다. 자폐인이 자신의 재능 발견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하는 것이 오티스타가 추구하는 가치다. 오티스타가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자폐인들이 세상과 소통하기를 기원한다.

별처럼 반짝이는 특별한 재능

오티스타(AUTISTAR)

‘오티스타(AUTISTAR)’는 ‘Autism Special Talents And Rehabilitation’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말로,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자폐인의 특별한 재능 재활’로 해석할 수 있다. 접시, 침구, 텀블러, 휴대폰 액세서리, 가방, 문구류, 골프공까지. 오티스타의 모든 제품은 자폐인의 그림과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오티스타는 그림의 재능을 가진 자폐인을 발굴하고 디자이너로 성장시킴으로써 자폐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1 오티스타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는 구성원들.



ALWAYS WITH YOU ○ 오티스타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재능 재활을 통한 자폐인과 일반인의 사회통합

오티스타는 2012년 이화여자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기반을 둔 연구 과제로 출발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이기도 한 오티스타 이소현 대표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실제로 입증하고 싶었다. 재능 재활을 통해서 자폐인과 일반인의 사회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 이를 기업들의 사회공헌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골자였다.

“연구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출판사, 연구비를 지원해주었던 기업을 찾아다니며 상품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회사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티스타의 사업 모델은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중이다. 당시 1명에 불과했던 자폐인 디자이너가 현재 10명으로 늘어난 것, 디자이너들 모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기도 하다.

오티스타가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실력 덕분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직원들의 직무지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훌륭하다고 해도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마련이죠. 개성 가득한 제품들이 오티스타를 움직이는 힘인데, 직무지원 직원들이 의사소통을 도와 최상의 품질, 콘셉트에 부합하는 품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디자인스쿨을 통해 전문 디자이너 양성

실제 오티스타 제품은 여러 가지 사물에 단순 로고를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다.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 만들어지는데, 고객의 콘셉트 제품도 다루고 있다.

“자폐 때문에 협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폐에 대해 이해가 선행된다면 나올 수 없는 질문이겠지요. 디자인 업무 특성상 집중력, 정리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일반인보다 자폐인들이 월등히 뛰어나요. 의사소통만 거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혜성 이사에게 오티스타 디자이너들은 선망하는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서 그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가슴 벅찬 일이라고 말한다.

오티스타 디자이너들은 오티스타 디자인스쿨을 통해 발굴되었다. 오티스타 디자인스쿨은 자폐인에게 디자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교수진은 이소현 대표를 비롯한 이화여대 연구팀 및 외부강사로 구성되었다. 비용은 무료로, 디자인의 기초요소 교육과 디자인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방법 등으로 이뤄진다.





2 오티스타 디자인스쿨을 통해 배출된 디자이너들.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지금까지 오티스타 디자인스쿨을 거쳐 간 학생은 70여 명. 1년에 6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여건상 많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어 아쉬운데요. 오티스타가 크게 성장해나간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재능 또한 ‘미술’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수 있을 테고요.”

오티스타는 디자인스쿨 출신 학생들의 디자인회사 취업을 모색하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 특수교육 전공자를 직원으로 채용해 자폐인 디자이너의 직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폐인 재능 재활·고용지원 등의 사회적가치 창출로 오티스타는 2013년 서울시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승인받았고, 2015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만 해도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사회적기업이지 않겠느냐 생각했죠.”

이 밖에도 오티스타는 ‘두 번 나눔 프로젝트’로 우리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후원을 통해 모집한 기부금으로 오티스타는 디자이너를 양성하거나 상품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다. 오티스타의 아름다운 제품이 우리 사회 그늘진 곳,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움을 수놓기 바라는 마음이다.

궁극적 목표는 자폐인의 재능 재활 시스템 구축

자폐인은 전 세계 인구의 1~2%로 추산되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약 2~3%가 해당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매년 4월 2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World Autism Awareness Day)’로 전 세계 곳곳에서 자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가 펼쳐진다.

오티스타 또한 매년 전시회를 개최해 자폐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 오티스타 디자이너들의 작품과 제품을 전시해 자폐인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리고, 자폐인들 또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임을 알린다.

“자폐인의 특징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폐인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버릇없다’,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죠. 또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자폐인이 볼 수 있다는 것, 누가 낫고 못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해요.”

오티스타의 궁극적 목표는 자폐인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자폐인의 재능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티스타의 성장을 기반으로 해 자폐인이 생애 전 주기에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폐인에게는 조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재능 재활 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자폐인들이 실제 현장에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후 자폐인 재능 재활의 분야 또한 다양해질 것입니다.”

오티스타 디자이너들은 오늘도 캠퍼스에 자신의 세상을 담는다. 그 세상에서 일반인은 포용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폐인은 자신의 꿈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

- 3 오티스타에는 총 10명의 자폐인과 5명의 일반인이 근무 중.
- 4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이기도 한 이소현 대표.
- 5 이화 52번가 상점가에 위치한 오티스타 갤러리 스토어.
- 6 오티스타 갤러리 스토어 내부.



자페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자페인은 특성상 '시각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시각적 학습'이란 스스로 시각적 신호를 만들어냄으로써 정보들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일까. 오티스타 디자이너들은 일반인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는다.

ALWAYS WITH YOU ○ 오티스타



오티스타 본사

총 10명의 자페인 디자이너와 5명의 일반인이 근무하고 있다. 오티스타는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지만, 의류·유통·전자·업종 등 여러 대기업과 협력하며 다양한 콘셉트 제품도 디자인한다.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79 6층
02-523-1714

오티스타 갤러리 스토어

이화여대 정문 옆 작은 골목, 이화 52번가 상점가에 위치해 있다. 오티스타 갤러리 스토어에는 특별한 디자인이 새겨진 물건들이 가득하다. 편지지, 파우치,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케이스, 머그컵과 작은 수첩들, 에코백 등 오티스타 제품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13 1층
02-393-1714

오티스타 홈페이지

설립 연혁·비전 등 오티스타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뉴스레터를 통해 매월 진행될 이벤트도 살펴볼 수 있다. 'shopping'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오프라인 매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 오티스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 www.autistar.kr



인기제품 모음 오티스타 하시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무채색처럼 단조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오티스타' 하시라! 상상력 가득한 오티스타의 제품들과 함께라면, 우리 일상도 다채로운 빛깔로 반짝일 것이다.

휴대폰 케이스



색동얼룩말 23,000원

기린(분홍) 23,000원

사파리버스 23,000원

트래킹 23,000원

에코백



도형동물 20,000원(M)

세계여행 25,000원(L)

공룡 20,000원(M)

유니콘 25,000원(L)

손거울



치타 4,000원

우주인 4,000원

경복궁 4,000원

세모사자 4,000원

종합장



버스 3,000원

양떼 3,000원

얼룩말떼 3,000원

나이트 사파리 3,000원

오프라인 매장

- 이화여대 웰컴센터·ECC
 - 국회의원회관 기념품 판매점
 - 두란노 서원
 - 양천구 행복나눔가게 나누리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1층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7 양천구민체육센터 1층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시도들

‘매년 900만 명이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로 목숨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전 세계 사망자의 16%, 6명 중 1명이 환경오염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이야기다. 이제는 그 누구도 방관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지지하고, 그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환경은 조금씩 개선되어 갈 것이다.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ISSUE IN ○ 환경문제 해결



환경의 역습! 환경오염 종류별 조기 사망인구



	세계질병부담연구 (GBD) 분석	세계보건기구 (WHO) 분석
대기 오염 전체	650만 명	650만 명
가정 실내공기 오염	290만 명	430만 명
대기 미세먼지 오염	420만 명	300만 명
대기 오존 오염	30만 명	-
수질 오염 전체	180만 명	80만 명
불안정한 위생 상태	80만 명	30만 명
오염된 상수원	130만 명	50만 명
직업 환경 오염	80만 명	40만 명
암 발생	50만 명	10만 명
미세먼지 오염	40만 명	20만 명
납 오염	50만 명	70만 명
토양·중금속·화학물질 오염	50만 명	70만 명
합계	900만 명	840만 명

*합계 수치는 여러 오염에 중복 노출돼 사망하는 경우를 감안한 것<출처: 란셋>



사회적경제의 노력

2022년까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10대 부문 육성 계획
(총 250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1 자원재생분야 지역공동체 활성화
- 2 재활용(업사이클링)
- 3 생태관광
- 4 환경교육
- 5 생물자원 활용
- 6 도시환경 개선
- 7 녹색제품 생산
- 8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유통 지원
- 9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 10 공기질 개선

<출처: 환경부>



환경문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해결 과제

환경문제는 그 누구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개개인의 선택 등이 친환경적으로 움직일 때 가능한 일이다. 고무적인 것은 우리나라에 친환경 사회적기업이 늘어 개개인의 선택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

**기후변화 지속 땀 세기말 한국에 4중재해
무심코 만진 영수증, 내 비만의 원인?
언제까지 마스크 쓰라고만 할 건가요**

헤드라인 순서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일어날 치명적 악영향, 영수증·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나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정부 대신 시민들 개개인이 알아서 피해를 줄여야만 하는 현실을 지적한 기사이다. 필자가 쓴 기사임에도 다시 내용을 돌아보는 것이 편치 않다.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중 올해 11월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함께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다. 몽골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실태와 이로 인해 한반도가 받는 영향을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몽골 방문은 2014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였다.

그 이전 방문에서는 푸른아시아의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차차르간(일명 비타민 나무) 농장을 조성해 자립해가고 있다는 내용을 취재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는 주민들과 이 단체가 힘을 모아 몽골 정부로부터 땅을 빌리고, 가공 공장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종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차차르간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몽골은 연 평균기온이 가장 많이 오르는 나라이다. 사막화와 이상기후로 수많은 환경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차차르간 농장 가구에도 환경난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후변화의 직접적 피해자인 주민들과 NGO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도움으로 몽골 땅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는 셈이었다.

우리의 희망, 친환경 사회적기업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여러 가지 문제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또 무수히 많은 희망을 품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몽골에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이미 많은 친환경 사회적기업이 의미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자원 재활용이나 자원순환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원을 아끼고, 비용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자원을 생산·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전체의 과제임을 생각하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플라스틱, 비닐로 대변되는 1회용 물품의 남용이 불러온 쓰레기 대란과 미세플라스틱이 불러온 건강위험을 막기 위해서도, 자원재활용과 자원순환은 더 이상 인류에게 '선택'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생활방식이 된 상태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회사 하나가 실천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대기업들은 변함없이 자원을 낭비하고, 온실가스를 뿜어대잖아?"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실제 사회적기업 하나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큰 비중이 아닐 수 있고, 대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친환경적 사회적기업들이 생겨나고,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 소비자들은 온실가스를 평평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한 좋은 사례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을 들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소비자들이 풍력,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이는 독일 사회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분야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난다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친환경적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기를, 이와 같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늘을 깨끗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 후 2011년부터 기후변화, 동식물, 자연환경 등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에서부터 탈원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환경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책 <오늘도, 녹색 이슈>를 펴냈다.

디지털 시대의 중심에서 재활용을 외치다

사회적기업 컴윈

환경문제 가운데 쓰레기와 그로 인한 오염 문제 중에서 오늘날 무시하지 못할 속도로 그 몸집을 불려가는 것으로 전기전자기기 폐기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이나 음식물처럼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선명한 정보가 부족한 이 제품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디지털시대 폐기물 처리 고민의 해답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친환경 사회 실현'을 꿈꾸는 사회적기업 컴윈을 만나보았다. 글 | 박어맨, 사진 | 박성희



ISSUE IN ○ TABOO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그 많던 전기·전자기기는 어디로 갔을까?

유엔대학 등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기·전자 폐기물의 양은 4,470만 톤. 2014년 조사보다 8%가 늘어난 수치지만 회수나 재이용은 20%에 머물렀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전자제품 사이에서 생활을 한다. 잘 작동하는 동안에는 이만큼 도움이 되는 것들이 또 없을 만큼 소중한 물건들이지만, 수명을 다하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지 막막한 골칫덩이로 전락해 버리는 것도 사실이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컴윈은 바로 이런 전기·전자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을 하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시도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03년 창립 당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공동체로 출발, 길거리에 버려지는 프린터 등의 전자기기를 모아 해체를 하던 일을 시작으로 점점 규모를 키워왔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전기·전자기기가 이곳에 모여 분해되거나 재정비되어 새로운 쓸모를 찾게 되는데, 작년에만 약 1,500톤에 달하는 기기가 컴윈을 거쳐 갔다.

버려지는 제품을 활용한 자원순환과 사회공헌

컴윈의 사업은 크게 자원순환과 사회공헌으로 나뉜다. 전자는 수명이 다한 전기·전자폐기물을 수거해 그 안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추출, 재자원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실제로 전기·전자기기를 분해했을 때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은 전체의 8%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컴윈의 정연철 대표이사는 말한다.

“전기·전자기기에는 고철, 플라스틱, PVC, 잡선, 비철 등 정말 많은 유가물(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죠. 저희가 하는 일은 기기를 분해하고 분류해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자원은 고철 같은 경우엔 용광로,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곳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품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도 관련하여 삼성전자나 한국옵슨 등의 대기업에서 수거해오는 제품을 처리하는 일도 포함된다.

또 하나인 사회공헌 사업은 기업이나 관공서,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불용기기를 이용하여 정보취약계층과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컴퓨터 등의 정보화기기를 보급하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 폐기되고 버려져야 할 전기전자기기들이 컴윈의 손을 거쳐 새로운 쓸모를 찾고,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셈이다.

“불용기기를 활용하는 일은 기업 차원에서 보자면 1석 2조의 사업이죠. 버려지는 제품을 이용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같은 사회적기업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셈이거든요. 여기에 자원순환이라는 친환경적 실천은 당연하고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디지털 시대의 신 '산업'

“우리나라는 석유도 나지 않고 수입해오는 자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폐휴대폰 1톤에서 나오는 금이 철광석 1톤을 수입해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금의 40배라는 것 아시나요? 작은 휴대폰 하나에도 백금, 금, 은 등 광물을 포함해 별의별 희토류(희귀금속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기·전자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도 시광산 산업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전기·전자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을 지키는 것을 넘어 원유나 원석, 광물질 등의 자원 수입 양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연철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보다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그만큼 개인이 가지고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 역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반면 과연 그 제품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겠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자원순환율이 95%에 가까워요. 학생 때부터 재활용에 대해 학습을 하고, 실제로 그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다시 사용되는지를 눈으로 보는 교육을 받죠.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커서도 자연스레 습관이 되고요. 그거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식이 아직 부족해요. 무엇보다도 재활용이 ‘산업’보다는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일’ 정도로 생각되고 있으니까요.”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의무는 법적으로 지자체에 있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도 부족하고, 그나마 지금 있는 정책마저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작게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분리수거부터, 크게는 정부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친환경·적정처리 바탕으로 지속적인 순환 만들어갈 것

전기·전자기기의 재활용이라면 동네 어귀, 마당에 고물을 가득 쌓아놓은 고물상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 이미지가 마치 쓰레기장 같은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이제는 그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보자.

“요즘엔 고물상도 시설 규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닥은 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야 하죠. 토너나 잉크가 바닥에 스며들면 오염이 되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철에도 오염물질이 있고, 수질, 환경, 소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적정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인허가도 매우 까다롭고 규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런 걸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 간혹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지만요. 우리의 핵심은 친환경 적정처리와 자원순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덕성과 투명성이니까요.”

현재 컴윈에서는 중고 부품을 이용한 자체 컴퓨터 제작 사업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부품 재활용 범위도 넓혀 플라스틱을 자체적으로 원료화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규모의 확장과는 상관없이 컴윈의 문은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고민하는 기업과 개인 모두를 위해 열려있다. 이제는 쓰지 못하는 낡은 컴퓨터 본체의 케이스를 조이고 있는 작은 나사 하나도 컴윈에 오면 자원이 된다. 지금도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휴대폰, 매일 같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노트북은 두말할 것도 없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쓸모를 다 하지 않았다는 것. 재활용만 잘 해도 환경을 지켜나가는 자원순환은 어느 야구선수의 말마따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시의 에너지 전환’ 환경을 살리는 첫 걸음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대표이사

성대골은 서울 동작구 상도3, 4동을 아울러 부르는 표현이다. 만 8년간 주민 주도의 에너지 활동을 벌이며 어느새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이 되었다. 도시의 인식변화가 환경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한 교육과 컨설팅 활동을 벌이며 성대골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이끌어 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대표이사를 만났다. 글 | 박여민, 사진 | 박성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Q 성대골이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를 보며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소비를 줄여 에너지를 아끼자 했고, 만 8년 정도 꾸준히 활동하며 지금은 에너지 전환 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마을 활동은 사업이 시작되던 2012년 9월부터 2년 4개월 정도 활동했어요. 그 이후 자발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이어나가며 서울시와는 위원회 참여나 에너지 관련 사업을 연계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Q 에너지 전환 운동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사회적 책임까지 들어간 적당한 비용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국민 개개인이 이해당사자라는 생각으로 개입할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민협동조합이 전력회사를 인수해서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급하며 에너지 전환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Q 마을에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만 3개가 있습니다. 각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성대골의 에너지 활동을 이끄는 조합입니다. 에너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화시킨 협동조합으로, 마을을 넘어 서울시 초중고의 에너지 교육과 에너지 진단, 복지, 종합적인 컨설팅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사봉중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옥상에 태양광을 올리고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이 지역의 70년 된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중개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협동조합을 또 설립했어요.

Q 성대골의 에너지 활동이 만들어낸 성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마을에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3개 생긴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고 동작신협에는 유일하게 에너지 관련 금융 상품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에너지를 일상적으로 느끼기 어려운데, 그래도 성대골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청소년 주체로 기후변화 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미래 세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직접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정책 개선을 촉구하라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Q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나요?

A 일단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가만도 못할 정도로 싸요. 이건 사실상 에너지를 평평 쓰도록 간접 독려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하기는 정말 힘들죠. 특히 에너지 전환 운동의 경우는 더 그래요. 에너지 독과점 체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 협동조합이 늘어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려주세요.

A 내년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협동조합 3개와 신협, 동작구청이 힘을 모아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 신사업 공모에 응모했고, 선정됐어요. 동작구 40만 명의 에너지 전환과 시민주도 지역에너지 시장 창출을 목표로 동작구 전력저수지, 가상 발전소(전력중개)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할 것이 환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모두가 환경,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함께 걸어보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성대골은 서울시가 2012년 원전하나 즐기기 정책을 시작하기 전부터 꾸준히 에너지 활동을 해왔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이다.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에너지슈퍼마켓을 중심으로 골목 골목을 걷다보면, 거리 곳곳에서 에너지 문제를 친환경적으로 풀어나가려 한 마을의 크고 작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슈퍼마켓

마켓의 E는 에너지의 영문 앞글자에서 따왔다.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는 제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에너지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한다.

성대골 노인정

성대골은 마을 특성상 오래된 건물이 많아 우풍이 심각한 문제였다. 성대골 노인정은 에너지 슈퍼마켓이 집 수리의 에너지 효율화를 고민하며 처음으로 집수리를 실행했던 장소로, 벽에 구멍을 뚫어 폼을 채우는 방식으로 우풍을 없앴다. 옥상과 입구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하면 전기가 생산되는 발전 보일러로 교체하니 지금은 너무 따뜻해 만족도가 높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다.



청춘플랫폼

성대골에 견학을 왔다가 거주하게 된 청년들이 만든 공간으로, 마을 분들과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혼밥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반찬을 나누는 나눔부엌 등의 프로그램과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현재 새 장소를 물색 중인 어린이 도서관도 이곳을 같이 쓰고 있다. 간판 위로 설치된 미니 태양광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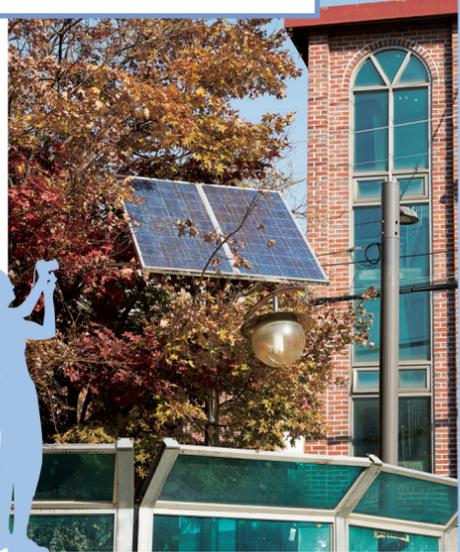
구립성대어린이집

다양한 에너지 수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구립성대어린이집. 벽면에 설치된 태양광이 눈길을 끄는데, 30만 원 이상 나오던 전기 요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상도4동에서는 작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2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한 놀이 수업이 진행했으며, 부모와 함께하는 태양광 DIY 활동으로 직접 태양광을 조립해 옥상에 설치해보는 등, 눈높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녕공영주차장

아직은 주차장이지만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녹지가 있는 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녹지가 부족한 성대골의 열섬현상 방지 및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일대의 가로등인데, 모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아 빛을 내도록 되어있다.



길거리 표지병과 벽부등

이 골목 일대의 표지병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작동한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도 벽부등을 설치해 주민환경을 개선했다. 태양광을 활용하는 표지병과 벽부등은 따로 전선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니 미관상으로도 좋다. 밤이면 어둑해지던 골목길과 오르막 길이 밝아져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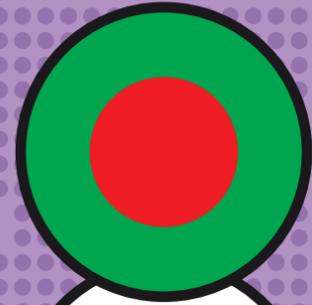
성대골 마을학교

성대골 마을학교는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던 곳이다. 태양광 온풍기도 만들어 설치했는데, 아직 효율이 좋지는 않다. 이제는 동네에 꽤나 보편화 된 미니태양광도 이곳에서 연구된 것으로, 모든 연구와 실험이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다!

환경문제는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해양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또 환경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대응이 요구되는 필수 과제다. 사회적경제의 움직임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물을 짓고, 환경을 테마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첨단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기도 한다. 글 | 편집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그라민 샷티(Grameen Shakti)’는 1996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자 사회적기업이다. 그라민 샷티는 ‘농촌의 에너지’라는 뜻의 방글라데시 말로, 방글라데시 농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공급 해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인구가 땀감이나 소동 등의 연료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때 나오는 유해 가스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라민 샷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농촌에 보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 설비를 통해 가축 배설물과 음식 쓰레기 등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이 가스를 취사용·조명용 연료로 쓰고 가스 생산 후 남은 찌꺼기는 유기농 비료로 쓴다. 그라민 샷티는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일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고,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었다(2017년 기준).

방글라데시 인구는 무려 1억6,300만 명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 나라의 빈곤 인구는 3,600만 명으로,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한다(2015년 기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을 늘려 삶의 질을 높여갈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의 관점에서 볼 때, 방글라데시에서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라민 샷티는 생존과 소득활동에서 재생에너지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다.

BANGLADESH

그라민 샷티

방글라데시 농촌에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환경을 생각하는 공유주택

스위스에서는 2000년대부터 새로운 주택단지의 25% 정도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아 알스 보덴(Mehr Als Wohnen ; More Than Living)' 주택협동조합은 2015년 문을 연 곳으로, 취리히시로부터 100년 동안 토지권을 제공받아 토지임대료를 취리히시에 지불하고 있다.

메아 알스 보덴의 주택임대료는 일반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하다. 조합원들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월 20~30스위스프랑(한화 2~3만 원)을 자발적으로 내고 있으며, 모금된 기금은 주택 관리비와 비롯해 조합원들의 활동비로 쓰인다.

메아 알스 보덴에는 약 380여 가구가 입주해 있다. 건물을 지을 당시 건물의 채광 및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 건물의 배치와 모양, 거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건물의 주재료는 재생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며,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전지를 설치해 전체 에너지의 40%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빗물을 이용하여 화장실 용수로 쓰고 있으며, 건물 계단, 천장 등의 자연채광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꼭 자동차가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어 입주 전에 미리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조합원들은 자동차를 건물 내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또 조합원들은 개인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다. 공동세탁실을 이용하는데 유아 및 청소년들은 정리, 정돈을 통해 공동체의 식을 기른다. 이 밖에도 베이커리, 회의실, 공동 텃밭, 댄스 및 요가 스튜디오 등이 운영되는데,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WITZERLAND

메아 알스 보덴 주택협동조합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유주택



쓰레기도 자원으로

'테라사이클(TerraCycle)'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01년 프린스턴 대학교 재학생 이던 '톰 재키(Tom Szaky)'에 의해 설립됐으며, 학생 식당 음식물 쓰레기를 먹은 지렁이의 배설물로 만든 비료가 테라사이클의 제품이었다. 비료의 포장용기는 코카콜라, 펩시 등 플라스틱 병이 활용됐으며, 테라사이클은 빈 플라스틱 병에 라벨만 붙이는 방법으로 제품을 포장했다.

2008년에는 비료 사업에 이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음료수 팩을 연결해서 가방을 만들고 쿠키 포장지를 엮어 연을 만든 것이다. 180여 종의 제품들은 어린이, 학생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대형마트 매장마다 고정 판매대가 설치될 정도였다.

테라사이클이 필요한 쓰레기를 얻는 방식은 인터넷 회원을 통한 쓰레기 수거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이 과정에 매우 적극적인데, 이 적극성은 테라사이클 제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2013년에는 담배꽂초와 씹다 버린 껌, 사용한 기저귀 등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확보해 휴대용 재떨이나 대형 화물 운반 받침대를 만들고 있다.

테라사이클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포함 22개국에 진출했으며, 약 340만 명이 모아온 24억7천만 개의 쓰레기를 재활용해 오고 있다.

쓰레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테라사이클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테라사이클

2001년 지렁이 배설물 비료 제조·판매로 시작해 전 세계 22개국에 진출한 쓰레기 재활용기업

몸과 마음에 건강한 희망을 심다

(주)희망드림

(주)희망드림은 아동 및 부모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다양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개인과 가족 나아가 이 세상에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주)희망드림에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또 다른 희망이 되어 그들의 도약의 발판을 지원했다. 글 | 박여민, 사진제공 | (주)희망드림

(주)희망드림을 소개합니다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4, 802-1호
- ☎ 031-440-9310~1
- 🌐 www.wehopedream.com

경기도 안양구에 위치한 (주)희망드림은 심리정서 및 인지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개발과 심리지원 서비스, 교육 등의 조력활동을 제공하여 인간 개인의 잠재력과 성장발달,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부설 상담센터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및 정서 지원 서비스, 부모의 힐링과 성장을 위한 취업지원, 양육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취업취약 계층 및 청년 실업자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확장해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심리정서 및 인지발달 관련 학문적 연구개발

- ▶ 심리지원 서비스
- ▶ 발달지원 서비스
- ▶ 심리/학습 검사
- ▶ 전문가양성 교육
- ▶ 아동교육/ 부모교육 특강

- ▶ 전인적인 아동발달 지향
- ▶ 사회적 가치의 책임
- ▶ 취약계층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및 실천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 (주)희망드림의 주요 콘텐츠를 소개해주세요.

㉠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 그리고 부모들의 힐링과 성장을 위한 취업지원,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 진흥원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 우리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드림의 큰 틀 안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와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잘 표현되어 있는 만큼 이 통합 안내 리플릿은 향후 계획 중인 가맹 사업 등에도 잘 활용할 예정입니다.

㉢ 부설 학습심리상담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 (주)희망드림에서 운영하는 맥 학습심리상담센터는 심리·정서 및 인지·학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전문적인 심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과 가정,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심리치료 기관입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아동들도 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서비스를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협업으로 운영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아이아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우리는 특히 미술이라는 예술분야를 활용한 정서 및 교육지원 서비스,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아이들의 교재·교구에 대한 개발 및 보급을 주된 사업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교육 브랜드인 아이아트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행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유·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재미있는 미술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7세의 유아에게는 유아발달단계에 필요한 5가지 영역(언어, 인지, 사회정서, 기본생활, 신체)을 통합 적용한 성장도움 프로그램을, 8~10세의 아동에게는 초등교과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Art를 통한 자기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아이, 성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아트 Therapy

유·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의 심리·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미술치료 / 놀이치료 / 언어치료 / 인지학습치료 / 그룹치료(사회성) / 일반상담 / 부모상담 / 가족상담
- 이용방법** 예약제로 운영 / 전화문의
상담예약 ▶ 초기상담 ▶ 심리검사 ▶ 테라피선택 & 계획 수립 ▶ 테라피 진행 ▶ 테라피 평가 & 종결 ▶ 사후관리

아이아트 Play & School

유·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재미있는 미술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자기성장 미술** 대상 : 4~7세
Play를 통한 성장도움 프로그램
유아발달단계에 필요한 6가지 영역의 통합 적용
- 창의인성 미술** 대상 : 8~10세
Art를 통한 자기통합 프로그램
초등교과의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창의성, 인성 함양 미술
- 테마미술** 매주 새로운 테마의 신나는 미술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주)희망드림 아이아트 리플릿 제작

- 리플릿 제작**
 - ▶ 전문가 상담으로 명확한 콘셉트 도출
 - ▶ 한눈에 들어오는 직관적인 디자인
 - ▶ 아이아트의 프로그램 별 특징 강조



Interview
(주)희망드림 김봉균 대표

Q (주)희망드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사업방향은 무엇인가요?

A 사명 그대로 사람, 세상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 희망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희망드림입니다. 아이들의 머리와 마음, 신체의 통합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심리정서 및 인지발달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개발을 하며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설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 아이들이 상담을 통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도 많기에, 이런 아이들도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진흥원을 통해 어떤 지원을 받으셨나요?

A 우리 회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안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드림의 큰 틀 안에서 정서지원 서비스와 교육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우리의 서비스가 잘 표현되어 있는 만큼 이 통합 안내 리플릿은 향후 계획 중인 가맹 사업 등에도 잘 활용 예정입니다.

Q (주)희망드림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문 두드려 도움 받으세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향후 사회적기업으로서 가맹사업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나갈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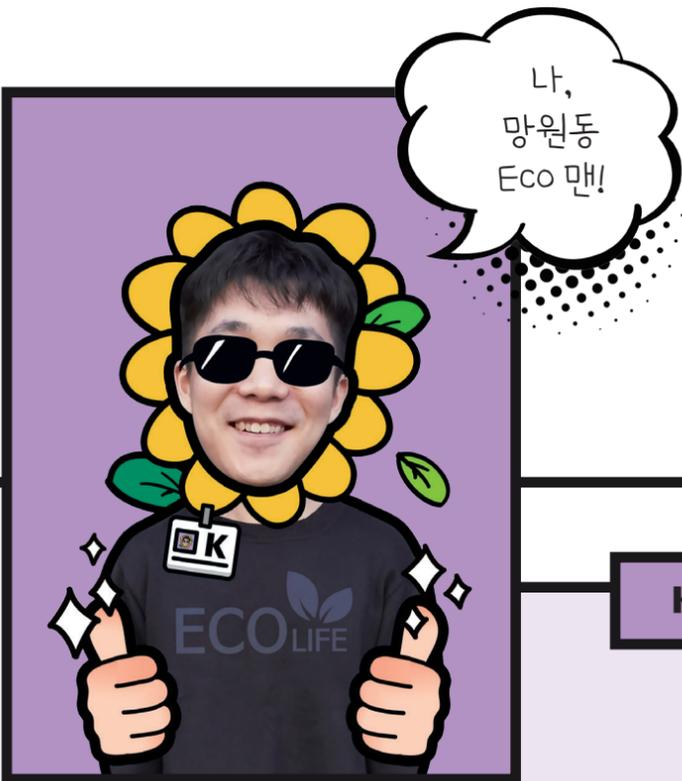
아이아트



이 남자가 도시에서 사는 법

하루 종일 도시의 소음과 매연, 디지털 공해에 지친 K씨는 오늘도 동네를 산책하며 자신만의 에코라이프를 꿈꾼다. 사회적기업을 알게 되어 터득할 수 있었던 느리고 여유로운 삶, 옆 사람과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 남자가 도시에서 사는 법이다. 글 | 박여민, 사진 | 박성희

VISION UP ○ K씨의 하루
사회적기업 매거진 36.5



나, 망원동 Eco 맨!

K씨의 프로필

나이 33세
직업 IT업계 프리랜서
사는 곳 재래시장과 빈티지한 카페, TV에 출연하는 식당들이 혼재하는 마포구 망원동의 핫플레이스 '망리단길'
좋아하는 음식 건강한 식재료를 장을 봐서 직접 만들어먹는 음식
최근 관심사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연 친화적이며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키포크적인 생활의 실천

- 가격 4,500원
- 구입 스토어36.5 은평점 (녹번역 4번 출구)

목화송이협동조합
 10여 명의 여성이 면생리대, 에코백 등의 친환경 바느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 070-7124-9351 🌐 www.cottonball.kr

장보기 필수품 장바구니



➔ 체험 전

평소에 가방 없이 잘 돌아다니다보니,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비닐봉지나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어야 했다. 싱싱한 식재료를 사서 그날 요리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장을 한 번 볼 때마다 집안에는 일회용 비닐봉지가 쌓여갔다.

➔ 체험 후

일단 가볍고 부피를 거의 차지하지 않아 걸옷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도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보자기형으로 묶어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데다 재질이 튼튼하니 식재료를 많이 사도 거뜰하다. 마음 놓고 장을 보러 다니는 날이 더 많아졌다.

- 가격 8,000원
- 구입 자체 홈페이지 및 카페

트립티
 산업재해를 입은 이주 노동자들의 자활을 위해 시작된 사회적기업으로 수익금 일부를 이주 노동자 산재센터 운영과 커피교육을 통한 자립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 02-726-9472 🌐 http://tripti.co.kr



➔ **체험 전**
 갈증을 잘 느끼는 편인데 그때마다 편의점에서 500ml 정도의 음료를 사마시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주로 즐기곤 했다. 테이크아웃 컵의 잦은 사용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텀블러는 무겁고,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 **체험 후**
 스테인리스로 된 텀블러보다 가벼워 집을 나설 때부터 물을 채워서 가지고 나가게 됐다. 옥수수와 밀 등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만들었다니 지구에도, 몸에도 좋은 제품인 것 같다. 차 거름망도 있고, 얼룩이나 냄새는 없어 만족하고 애용하고 있다.

- 가격 13,000원
- 구입 안국본점 매장 (안국역 1번출구)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아시아 빈곤국가의 여성 생산자가 만든 친환경 원료와 핸드메이드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거래하고 있다.
 ☎ 02-739-7945(안국본점) 🌐 www.fairtradegrugru.com



➔ **체험 전**
 음식을 먹다가 흘리거나 데이트를 할 때도 텀블러를 들고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여자친구에게 타박을 많이 받는 편이었다. 휴대용 티슈 챙기는 걸 맨날 깜빡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친환경에 공정무역까지 생각하는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는 팁을 전해 받았다.

➔ **체험 후**
 반다나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몰랐다. 날이 추울 때 목에 두르면 보온용으로도 좋은데다, 야외에서 데이트를 할 때 펼쳐서 깔아주니 여자친구의 반응이 다르다. 코트에 묻은 이물질까지 바로 닦아주니 단숨에 완소 매너남 등극.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한 해의 마무리

연말연시를 함께할
나만의 소품



어느새 2018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맞아 한 해의 마무리를 함께하면 좋을 사회적기업의 소품을 모아봤다.

글 | 박여민, 사진 | 박성희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옷깃을 여머도 파고들어오는 칼바람,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다이어리에는 아직 못 다한 올해의 계획이 한 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을 정신없이 치루고 나면 또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 되겠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허전함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조용히 방 안에 앉아 홀로 즐기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법.

혼자가 조금은 외롭다면 몇 가지 소품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왕이면 예쁘고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고, 자연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물건이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함께'라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 추울 때 함께 보듬어주고, 힘들 때면 말없이 곁에서 응원해 주는 작은 소품들이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당신의 연말연시를 더욱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발끝까지 따뜻하게 수면양말 행복플러스

- www.행복플러스.kr
- 031-357-7392

더 이상 산타할아버지를 기다리며 밤새 양말을 걸어 둘 일은 없다. 그래도 이 겨울, 우리에게 양말은 필요하다. 특히 밤낮으로 차가운 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포근한 감촉으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수면양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사단법인 행복플러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일터로 부드러운 고급 탁텔사를 특별 혼용기법으로 사용한 수면양말을 판매하고 있다. 촉감이 좋고 신축성도 뛰어나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느낌이 유지된다.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향초만한 것이 없다. 좋은 향기와 함께 방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향초는 요즘 마음 치료, 힐링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가치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로템복지재단 로템직업재활센터에서 제작하는 친환경향초는 파라핀으로 만드는 기존의 향초와 달리 순수 국내산 콩(소이)왁스를 사용한다. 따라서 장시간 초를 켜놓아도 인체에 무해하며, 향도 라임, 라벤더, 포도, 로즈의 4가지가 있어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향초 로템복지재단

- www.로템직업재활센터.com
- 051-343-7797

마음까지 담은 사계절머그컵 오티스타

- www.autistar.kr
- 02-523-1714

머그컵에 달콤한 코코아나 감미로운 차를 담아 한 잔 마시면 추위에 얼었던 몸이 사라락 녹아내린다. 그 컵이 자페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몸을 넘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자페인의 재능 재활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티스타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자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어떤 걸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영화<포레스트 검프> 속 이 대사는 연말에 더욱 와 닿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올해 우리는 얼마나 달고 진한 초콜릿을 입에 넣었을까. 합성첨가물이나 식물성유지 없이, 페루의 카카오 생산자로부터 공정무역으로 구매한 자연 재료로 만든 이퀄 초콜릿을 먹으며 곰곰이 생각해보자. 올해 유난히 쓴 초콜릿을 골랐다면 할지라도 진하고 달콤한 이퀄 초콜릿의 품미가 그 쓴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저개발국 농부의 자립과 공동체 발전을 돕는 아름다운커피의 제품으로 공정무역을 추구하며 아동노예 노동에 반대하고 있다.

진하고 달콤한 공정무역 이퀄 초콜릿 아름다운커피

- www.beautifulcoffee.com
- 02-743-1004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진흥원은 2019년 1월 17일(목)까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모집한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창업팀에게는 창업공간과 창업자금,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신청 시 3인 이상 구성이 완료돼야 하며, 온라인·오프라인(우편·방문) 신청이 둘 다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회원가입이 필수인데,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류 겹봉투에 '2019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를 표기해야 한다. 1월 21일(월)부터 2월 18일(월)부터 심사가 진행된다.



대구 성장지원센터 개소 총 50개 창업팀이 입주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은 11월 30일, 대구시에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의 성장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 대구' 성장지원센터를 열었다. '소셜캠퍼스 온(溫) 대구' 성장지원센터는 2개층, 549평(1,816㎡) 규모로 만들어졌고, 초기 창업팀에 필요한 입주공간과 회의실 등 제반 시설과 멘토링, 창업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여는 '소셜캠퍼스 온(溫) 대구' 성장지원센터에는 총 50개 창업팀이 입주한다. 성장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영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서울, 부산, 전주에 2018년에는 경기, 대전에 각각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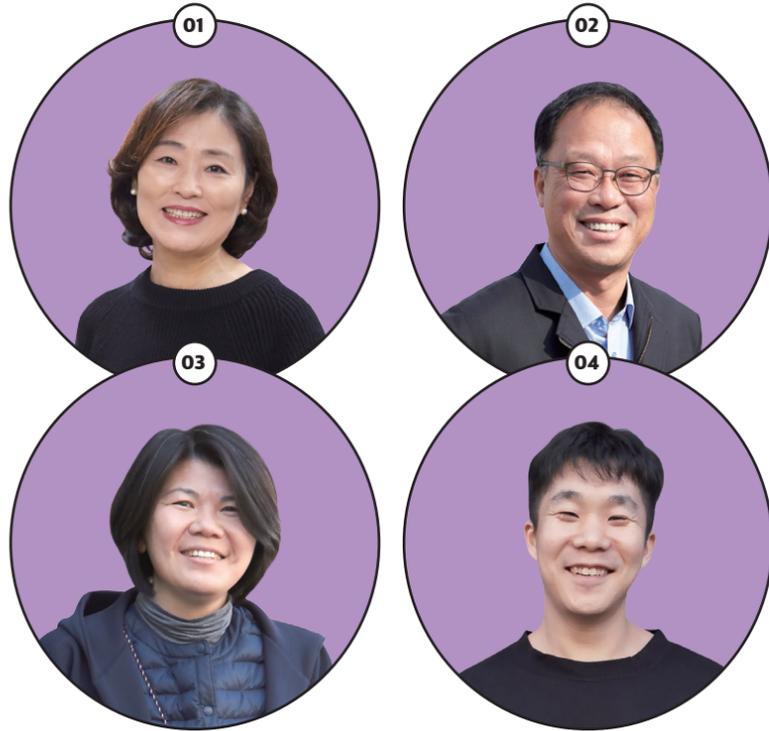
2018년 사회적기업 312개 인증 사회적기업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 중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회적기업 312개를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2,123개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기준 사업실적이 있고 2018년 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825개소를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2017년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3조5,53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36.8% 증가하였고, 기업 당 평균 매출액 또한 19억5,0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하여 23.3% 증가하였다. 전체 영업이익은 177억9,000만 원이며, 영업이익 발생 기업 수는 1,008개소(55.2%)로 2017년 대비 5.1%p 증가하였고, 기업 당 평균영업이익 또한 90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하여 274.9%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실적이 개선됐다.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상승과 근로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노동생산성 또한 꾸준히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 새 단장

12월 3일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바로 온라인에서 쇼핑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e-store 36.5+'가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은 e-store 36.5에 접속해 해당 사회적기업에 직접 연락해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새단장한 e-store 36.5+에서는 누리집에 구매기능을 추가하여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외에도 마을기업, 여성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가 입점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상품평 기능과 우수 상품목록 등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매 및 방문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 기능을 추가하고, 그 밖에 누리집 이용편의 개선, 모바일 페이지 구축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

<36.5> 지면을 채워 준 인터뷰이·소비자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전하는 응원 및 당부의 메시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사회적경제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글 | 편집실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자생력을 높여주세요.

p4
Always
with you

01 **오티스타 이소현 대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 지원보다는 그 사회적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테면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는 직무지도 인력을 배치해주는 것이죠. 또 성장 가능성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사회적기업에는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짓수를 늘리는 것보다 선별적·집중적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곳의 목소리도 크게 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p24
Zoom in

03 **마을닷살림협동조합 김소영 대표이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풀뿌리 단위의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들 중에는 이루어진다면서 오래도록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은 속도 있고 과감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 CEO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더 열악한 곳을 먼저 바라봐주세요. 기술이 '있는 곳'에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주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홍보에 더욱 힘써주세요.

p20
人Taboo

02 **사회적기업 컴윈 정연철 대표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매거진 <36.5>를 구독하여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일에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활용업체는 규제가 많고 체계화도 쉽지 않은 등 만만치 않은 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진흥원과 정부 차원에서 기술이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기업을 소개하여 각 분야에서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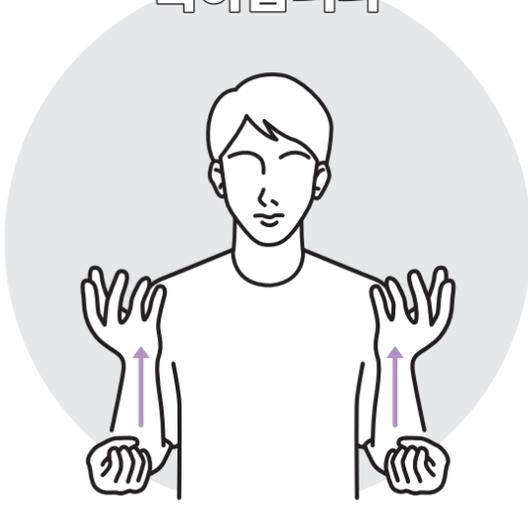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가 좀 더 쉬웠으면...

p34
K씨의 하루

04 **K씨**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가끔은 구매하는 것 자체가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 않은 스토어36.5를 찾아도 물건이 모두 비슷하고, 찾는 제품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정이 이러니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사용을 권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회적기업은 많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인지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 아쉽지만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사회적기업을 알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온라인의 '별별마켓'처럼 한 곳에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확인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합니다



- ❶ 손등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볍게 두 주먹을 친다.
- ❷ 두 주먹을 위로 올리며 손가락을 활짝 편다.
 불꽃이 터져 오르는 것을 연상해 본다.

사랑합니다



- ❶ 왼손은 주먹을 쥐고 손등이 왼쪽으로 향하게 한다.
 오른 손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 핀다.
- ❷ 오른 손바닥을 주먹 된 왼손에 올리고 돌린다.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을 연상해 본다.

기다려주세요



- ❶ 오른손을 '기'자 모양으로 구부려 손가락 등을 턱 밑에 댄다.
- ❷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편 왼쪽 손바닥에 오른손을 펴서 손등을 두 번 댄다 댄다.

힘내세요



- ❶ 오른 주먹을 쥐고 팔을 구부려 당긴다.
- ❷ 팔뚝의 알통을 보이는 동작을 연상해 본다.

<출처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조용한 손짓 진실한 언어

손짓은 말의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많은 말을 담을 수 없기에 진심을 전하려는 노력. 그런 의미에서 수어는 솔직하고 진실한 언어이다. 글 | 기사윤

청각장애인과의 대화 방법

01 대화를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쉬운데, 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02 진솔하고
 솔직하게!

청각장애인은 다른 감각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가식적 표현은 금세 알아차린다. 또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반말을 해서는 안 된다.

03 못 알아들으면
 정중하게 확인

청각장애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라고 확인하며, 발음이 틀렸다고 비웃거나 교정하지 않는다.

수화 콘텐츠 생산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열린책장 042-719-1004
www.facebook.com/wingsbooks

‘히로와 나누는 사랑의 수화’는 열린책장에서 개발한 카카오톡용 이모티콘으로, 현재 2탄까지 출시됐다. 캐릭터 ‘히로’가 ‘사랑해’, ‘힘내’, ‘안녕’, ‘대박’ 등 일상에서 즐겨 쓰는 표현을 수화로 전달하는데, 이용자는 이모티콘으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수화를 배울 수 있다. 이모티콘 판매금은 수화영상도서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다.



독자 BOX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알찬 <36.5>을 만드는 데 소중한 토대가 됩니다. <36.5>을 읽은 후의 느낌과 생각을 편집실로 보내주세요. '36.5를 읽고'라는 말머리와 함께 아래 문항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모두 답하셔도 좋고, 몇 가지 문항만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 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kosea@ikosea.or.kr
 📱 @social365
 📷 @kosea_365

01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흥미로운 점을 말씀해주세요.

02 2019년 36.5가 다뤄졌으면 하는 콘텐츠를 말씀해주세요.

0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의견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께는 아름다운가게의 '핫초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주세요.



가치의 날개를 펴고 창업에 도전하라!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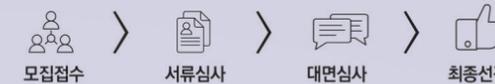
모집기간 12.24.(월) ~ 01.17.(목)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신청자격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준비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나한 자	초기 창업팀 창업 2년 미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재도전 창업팀 이전 육성사업 참여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	--	---

선정절차



지원내용

창업공간 | 창업활동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창업자금 | 창업팀당 평균 3천만원 내외 차등 지원 (최대 5천만원)
 멘토링 | 창업 전 과정에 걸쳐 상시적인 자문을 제공할 담당 멘토 및
 전문분야 멘토링을 제공할 전문가 연계 지원
 자원연계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지원
 성장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멘토링 등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www.seis.or.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오프라인 신청 |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36.5

사회적기업 매거진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딩 6~8층

T. 031-697-7700 F. 031-697-7853 H. 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97 72465 870009
ISSN 2465-8707